

June 10 양선, 나의 권리 포기하기

• 갈라디아서 6:8-10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doing good), 즉 선함(goodness)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란 동일한 상황에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합니다. 또 '모든 이에게'란 선행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음을 뜻합니다. 사람은 쉽게 낙심하며 선행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선을 끝까지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사람들처럼 행해야 합니다(갈 3:27).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서 공손하고 예의 발라야 합니다. '공손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 'courteous'에는 왕궁을 뜻하는 'court'가 있습니다. 즉 왕궁에서처럼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 덕분에 신분과 정체성이 바뀐 우리는 새로운 직무와 직능을 행하게 됩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성품과 태도를 배우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빌 2:5).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품과 태도가 요청됩니다.

선함은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시 100:5).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요 10:11). 대상이나 환경을 보면 선을 행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처음 창조하셨던 선한 모습 그대로 세상과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역시 창조의 동역자로서 선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동참합니다. 나와 너, 곧 우리가 창조 세계에 부여하신 가치와 특권을 인정하며 지키는 일에 동참할 때, 우리 삶에 양선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 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닮아 가고 있습니까?
- ② 하나님이 세상을 가꾸시는 일에 동역하고 있습니까?